

## 영광 한빛3호기 또 섰다

보수 6개월만에...“안전 검증 없는 재가동” 불안감 확산

### 원전 7기 스톱 전력 비상

한빛(영광)원전 3호기가 재가동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발전을 멈췄다. 원전 부품 납품 비리에 잇따른 가동 중단으로 인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 원전 23기 중 7개가 발전을 중단한 데 따른 겨울철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설부터 가동에 앞서 부실한 원전 운영에 따른 당국의 신뢰 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4일 오전 영광군 흥농을 한빛 3호기가 발전기 이상으로 가동을 정지했다. 한빛 3호기는 지난해 11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돼 수리를 마치고 지난 6월 재가동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자는 “한빛 3호기의 경우 전력난을 이유로 서둘러 재가동했다가 뒤늦게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철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한빛 3호기의 원자로는 출력을 30% 수준으로 낮춰 운영되고 있다. 원자로가 정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인 파악과 고장 부품 교체 등의 절차를 마치는 데로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본부(이하 한빛원전)는 4일 오전 8시 50분께 설비용량 100만kW인 한빛 3호기가 터빈발전기 고장으로 가동 정지됐다고 밝혔다. 한빛 원전 3호기는 지난 6월 9일 재가동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가동이 중단됐다. 또 지난해 28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1호기(58만kW)가 발전 정지된 이후 6월 만으로, 이로써 3호기 가동 정지로 전국 원전 23기 중 7기가 멈춰 선 상태다.

한빛원전측은 “전기 전압을 높여 주는 ‘주변압기’와 전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변전소 전력선 절연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정지됐다”고 밝혔다. 잦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가시질 않고 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관계

## 서기동 구례군수 주민소환 무산 투표율 미달...군수직 유지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율 미달로 서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구례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구례지역 19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는 선거인 2만2909명 중 1918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8.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 결과(707명)를 합한 결과로, 개표 성립 요건인 33.3%(7667명)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이 부결되면서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14일부터 직무가 정지됐던 서 군수는 5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서 군수는 “구례지역의 분열과 갈등이 이번 투표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새 도약과 군민간 화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견을 달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균형 발전을 위해 모두 포용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후 경기 하남시장·제주도지사·경기 과천시장·강원 삼척시장·구례군수가

지 이어진 주민소환투표는 모두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못 하는 기록을 이었다. <2면에 계속>

/구례=이중행기자 galee@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2013년 12월19(목)~23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062)605-1114

##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중강 세미나 지상중계 ▶8·9면

## 기초 정당공천·선거 기호제 없애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거대 정당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현 기호 선거제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력 저하와 우수인재 유출로 광주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생산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광주에 서비스업업을 육성해 호남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내야 한다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중강 세미나'에서 '광주·전남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 뒤 지역 리더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난 3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기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중강 세미나'에 참가한 지역 리더들은 “호남이 소외된 현 정국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 경제와 교육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각 기업, 지자체가 힘을 합쳐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는 기현호 광주일보 편집국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4개 분야에서 '광주·전남 발전 해법을 찾자'를 주제로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치분야 주제 발표자로 나선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은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현재의 기호 선거제를 폐지하고 선진국의 추천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정당의 지역 독점 및

### ‘생산도시’ 광주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학력 저하·인재 유출’ 광주교육 위기 거리·음식 등 문화자산 관광자원 활용

역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돼 재원 배분 등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전남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모인 자리인 만큼 낙후된 지역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먼저 지역 인물 키우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화 광주시의원은 경제분야 주제발표에서 “광주가 생산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졌지만 호남지역 거점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답하기 힘들다”며 “광주는 앞으로 의료와 교육, 교통, 유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한데 모은 ‘백화점식’ 거점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섭 토론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제 발전책보다 현재 있는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광주 제조업의 40%를 차지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야 한다”고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광주교육이 위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학력 저하와 우수인재 유출, 교육재정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윤봉근 광주시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선 현실 진단을 통한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왕복 조선이공대 총장은 “학력 저하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우수 학생들의 타지역 유

출이 매년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단의 학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숙 송의중 교장은 “토요 휴무에 따른 주중 업무 급증으로 학생생활 지도가 소홀하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진로체험활동을 강요하는 등 교육정책과 학교현장 간 괴리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문화분야에서는 무등산과 음식 등 광주의 문화자산을 엮어 콘텐츠로 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윤모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은 “북구 문화동 시화마을, 양립동·충장동 등 거리문화, 음식문화, 무등산 등 광주의 일상과 문화적 자산을 콘텐츠화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숙 하나항공여행사 대표는 “KTX가 개통되면 수도권 유출을 우려하지만 반대로 광주로 뺏어올 수 있다”며 “문화와 관광, 먹거리를 접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고속 프리패스!**

EBLPASS

금호고속

## 전국을 가장 알뜰하게 여행하는 방법?

**"EBLPASS" Express Bus Lines PASS**

고속버스 무제한 자유여행 패스 EBL PASS 하나로 전국 방방곡곡 마음껏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7일 이용권**  
(주·중·말 모두 이용가능)

**5일 이용권**  
(월~금만 이용가능)

구입처:  
www.buspass.co.kr  
www.eblpass.co.kr

문의:  
02-861-1230

금호고속

금호고속 프리패스란?  
금호고속 버스가 다니는 국내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정액권 교통티켓